

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



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

지역을 살리고, 세계로 넘실대는 K-문화체육관광

2026. 8. 5.



문화체육관광부



I. 성과

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

- 표현의 자유 보장, ‘팔길이 원칙’ 재천명
- 예술인 권리보호 전담부서 신설, 권리보장위원회 독립성 강화 추진

창작 안전망 강화

- K-아트 청년 지원사업, 청년예술인 3천 명 창작활동 지원
- 생활안정자금 지원 수혜 확대 : 2천 명 → 5천 명
-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: 안전 공제상품 출시 예정

기초예술 지원 확대

- 문학 상주작가, 집필공간 및 번역출판 지원 강화
-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으로 미술산업 체계적 진흥 기반 마련, 화랑 전속작가 확대
- 연극 대관료지원 확대 *상반기 연극 티켓판매액 전년대비 2.1배 ↑
- 창작뮤지컬 연습공간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, 국악 지역순회 공연 활성화
- 공연할인권(1만원) 40만 장 배포

문화현장 소통 강화

-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(11개 분과 100명) 구성, 대중문화교류위원회(7개 분과) 출범
 - 분야별 간담회 수시 개최(1년간 장관 간담회 300회), 현장에 기반한 정책 발굴

‘일상 속 문화’ 환경 조성

- ‘문화가 있는 날’ : 월 1회 → 매주 수요일
 - 영화티켓 할인(월 2회), 궁능 무료개방, 국립공연장 기획공연 최대 30% 할인
- ‘우리동네 프로젝트’로 지역순회 공연 확대(‘25년 583건→’26년 1,050건)
- 영화·공연·숙박 등 할인권 배포, 국민 문화생활 지원(540만 명 수혜)
- 통합문화이용권 인상(‘25년 14만원 → ’26년 15만원),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 확대(영화·도서 추가)
- 꿈의 예술단 장르(전통, 융합 추가) 및 지역거점(‘25년 110개소→’26년 150개소) 확대

국립중앙박물관, 세계 3대 박물관 등극

- ’25년 관람객 650만 돌파, 올 상반기도 40% ↑
- 오픈런·품절대란 ‘뭇즈’ 상반기 매출액 2배 ↑(‘25년 상반기, 115억 → ’26년 상반기, 217억)
- 빵 터진 ‘국중박 분장놀이’, 전국으로 확대

K-컬처 산업 재조정

- K-컬처 재정의 : 문화창조산업 + K라이프스타일* + 방한관광

*K-푸드, K-뷰티, K-패션의 해외수출액

- 3대 핵심 수출산업⁽²⁵⁾ : 반도체^(1,734억불) - 자동차^(720억불) - 'K-컬처'^(718억불)
- K-컬처 쾌속 질주 계속 : 콘텐츠 수출액 22%↑^(1분기), 상반기 방한관광객 21%↑
- 새로운 '30년 국정목표
K-컬처 시장 300조 → 400조, 수출 50조 → 160조^(1,100억불)

활기 되찾는 영화산업

- 중예산영화 지원 확대('25년 6편 → '26년 36편), 영화할인권 450만 장 배포(270억)
- 극장 관객 증가('25년 상반기 4천2백만 → '26년 상반기 5천7백만), <왕과 사는 남자> <군체> <호프> <살목지>

문화산업 '난제' 해법 도출

- 콘텐츠 불법유통
 - 신속 법개정 완료 및 시행(5.11, 저작권법)
 - 불법 웹툰 사이트 잇단 폐쇄 및 운영자 검거(4월~)
- 압표
 - 신속 법개정 완료 및 시행 예정(8.28, 공연법·국민체육진흥법)
 -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, 신고 포상금 도입

역대 최고치 대한민국 관광

- 최고기록 연속 갱신, 상반기 방한객 1,071만 명(전년 대비 21% ↑)
- 지방 입국 외래객 289만 명(전년 대비 28% ↑)

지역경제 살리는 국내관광

- 반값여행 신설(인구감소지역, 30만명), 반값휴가 14.5만 명

강력한 관광 컨트롤타워 구축

-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주재로 격상,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체 운영

활력 넘치는 국민 체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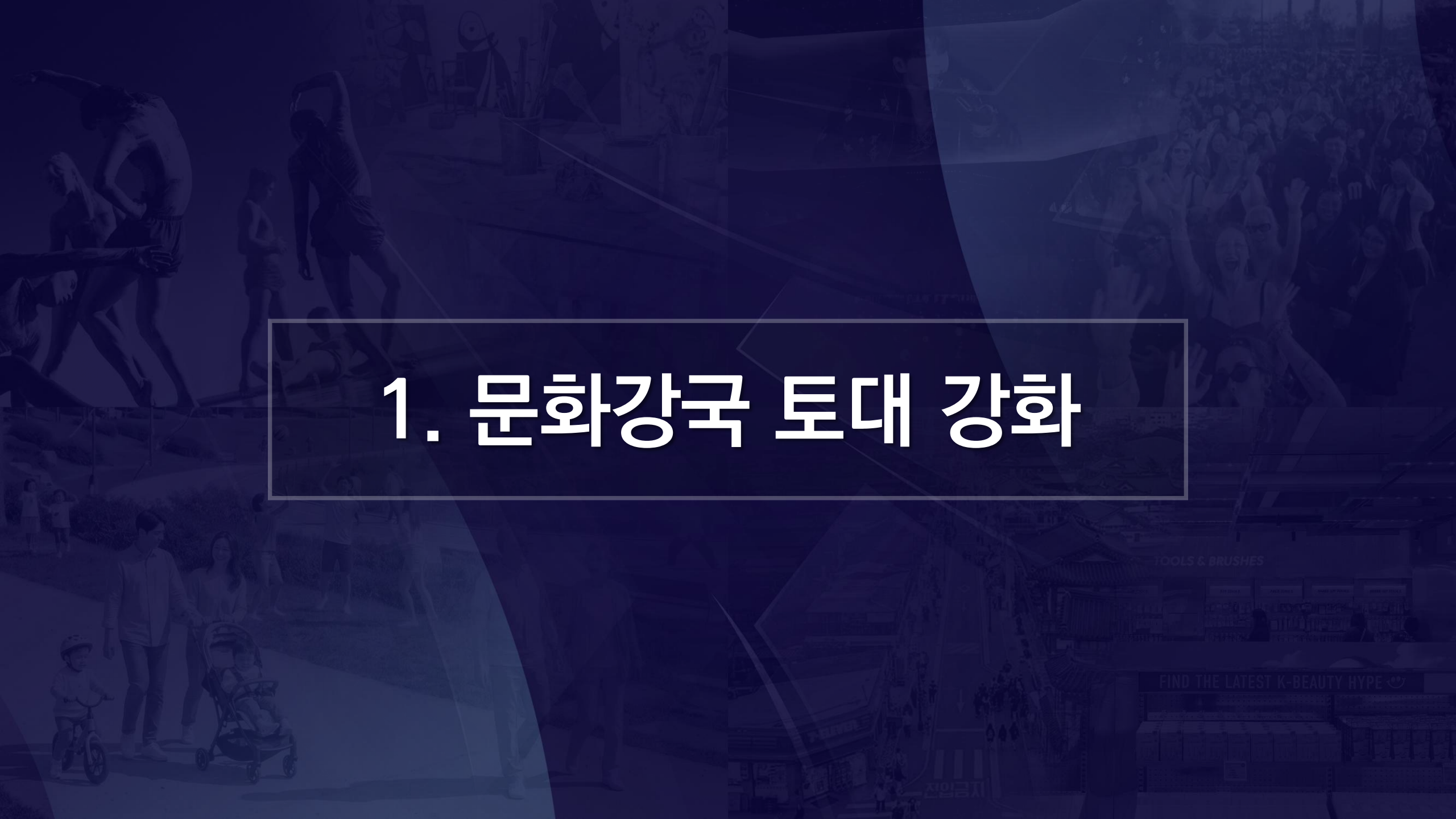
- 국민체력 100 참여인원 132만 명(26년 상반기, 전년 대비 98% ↑)
- 프로스포츠 역대 최대 관중 1,782만 명(25년, 전년 대비 9.5% ↑)
- 2026 밀라노·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(종합 13위, 금2 은4 동1)

체육계 개혁 착수

- 대한체육회장 2회 이상 연임금지 제도화(4월), 직선제 개편(7월 총회 의결)
- K-축구 혁신위원회 출범(7월), 연내 선거제도 개편 착수



II. 주요 계획



1. 문화강국 토대 강화

‘보통의 직장인’ 수준으로 예술인 사회보험 확대

-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규모 확대
-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대폭 확대 :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
- 예술인 건강검진 지원 신설 추진

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

- 예술활동준비금, 청년창작자·연수단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 확대
-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

문화강국 뿌리 기초예술 강화

- 신작발굴, 재공연, 레퍼토리화 등 단계별 창작지원 대폭 강화
- 문학 상주작가 및 미술 전속작가 확대, 공연장 및 연습공간 확충
- 우수공연 전국유통 및 스케일업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
- 지역예술인 풀뿌리 창작지원 신설 및 지역특화 예술단체 지원

인디 콘텐츠 집중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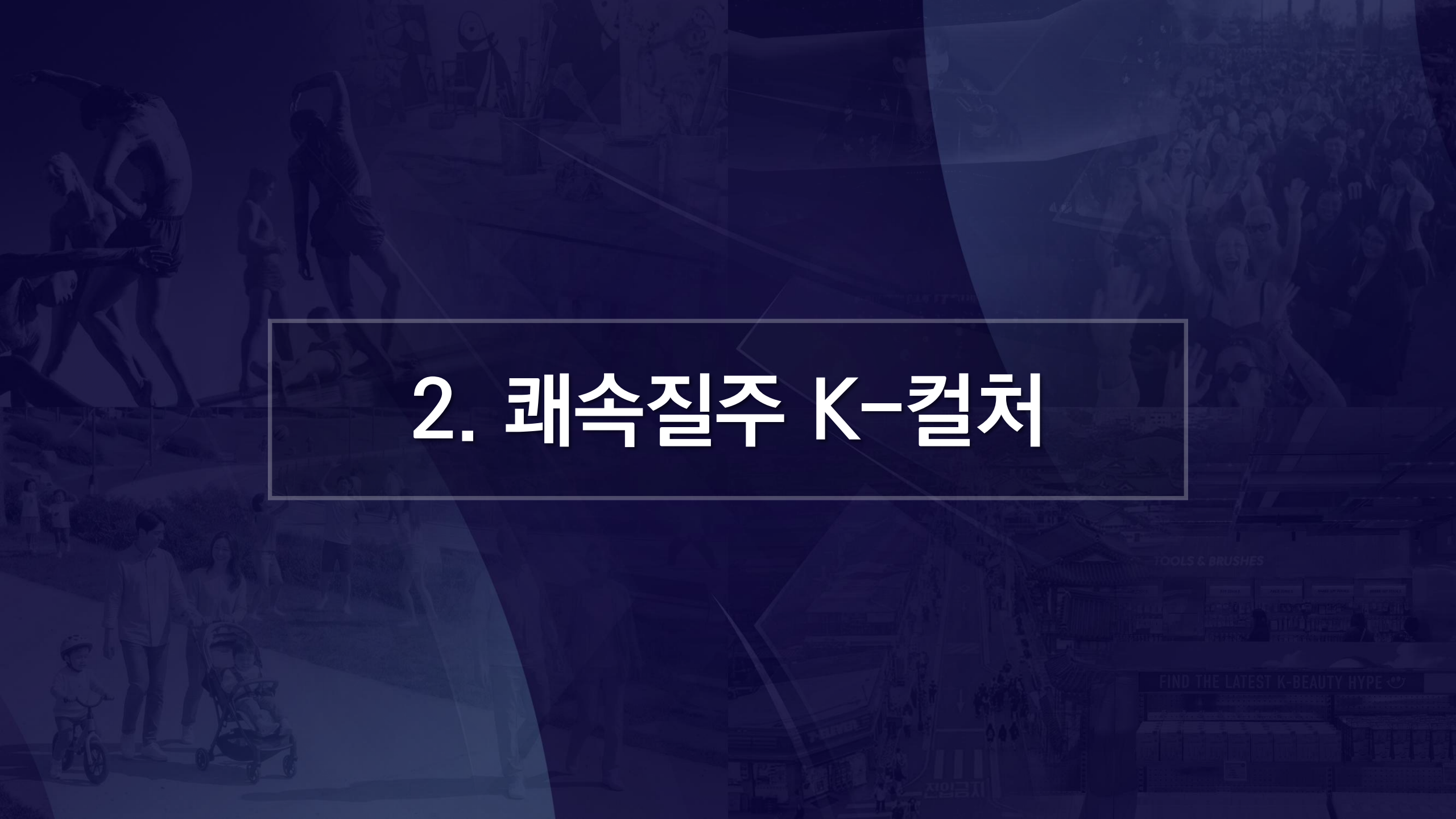
- 독립영화 제작('26년 60편 → '27년 68편) 및 영화제 개최 지원 확대, 지역영화 지원 추진
- 공연장·녹음실 갖춘 인디음악 전용 복합시설 조성, 지역별 대표 인디축제 육성
- K-뮤직 중소기획사·인디뮤지션 글로벌진출 지원(100팀 이상)

미래 예술인재 육성

- 한국예술종합학교, 세계 최고 예술 교육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
- 전국 300개 예술대학(학과) 경쟁력 강화, 학교예술강사로 예술인재 조기 발굴

다양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

- 문화예술 연수단원·게임인턴·뉴미디어 영상PD 등 청년 일 경험 확대
- 지역정착형 문화·관광 일자리(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 전문인력, 지역 관광기업 인턴, 관광두레)
- 청년 K-컬처 글로벌 프런티어, ‘(가칭)누구나 K-탤런트’ 등 해외도전 기회 확대



2. 쾌속질주 K-컬처

세계로 뻗어가는 K-영화영상

- 한국-프랑스 ‘뤼미에르 서밋’ 공동 개최(9월)
- 국제 공동제작, 국내 촬영(로케이션) 인센티브 제공, 글로벌 제작 허브 도약
- K-OTT·FAST 글로벌 유통경쟁력 강화(화질·음향 개선 및 더빙 지원)
- 국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IP 발굴 및 성장 지원

한국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 복원

- 1년 지원 → 2개년 이상 다년도 지원으로 개편
- 제작사의 IP 지분 확보 전제, 드라마 제작지원 금액 2배 상향 추진
- 저금리 융자 및 모태펀드 영화계정 등 정책금융 대폭 확대
- 홀드백 등 유통구조 개선 위한 민관 협의 중

대형 K-컬처 페스티벌 ‘패노메논’ 개최

- 내년 12월 서울에서 제1회 팬덤시상식과 콘서트 개최(12.2~12.12)
 - 영화, 애니, 웹툰, 게임, 푸드, 뷰티, 패션 등 다채로운 K-컬처 행사 진행
- '28년 5월 LA를 시작으로 매년 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K-컬처 페스티벌 개최
- 해외 주요도시에 ‘K-컬처센터’(전용 공연장) 확보 추진

K-콘텐츠와 함께하는 K-푸드·뷰티·패션

- 드라마 속 K-푸드와 주요 관광지, 공동 마케팅
- 푸드·뷰티 등 K-컬처에 투자하는 ‘밸류업 펀드’ 신설
- 청년셰프 해외 팝업 한식당 지원 등 K-컬처 특화 프로그램 강화(‘한국의 부엌’)

게임강국, 넥스트 스테이지로!

- 게임업계 출자 대형 IP펀드, 게임업계 특화 융자 신설
- 인디·IP활용·대작 게임 발굴 확대, 수출바우처·현지마케팅 등 수출경쟁력 강화
- AI활용 게임 창제작 효율화, 게임분야 현장 청년인턴 확대

세계를 감동시키는 우리의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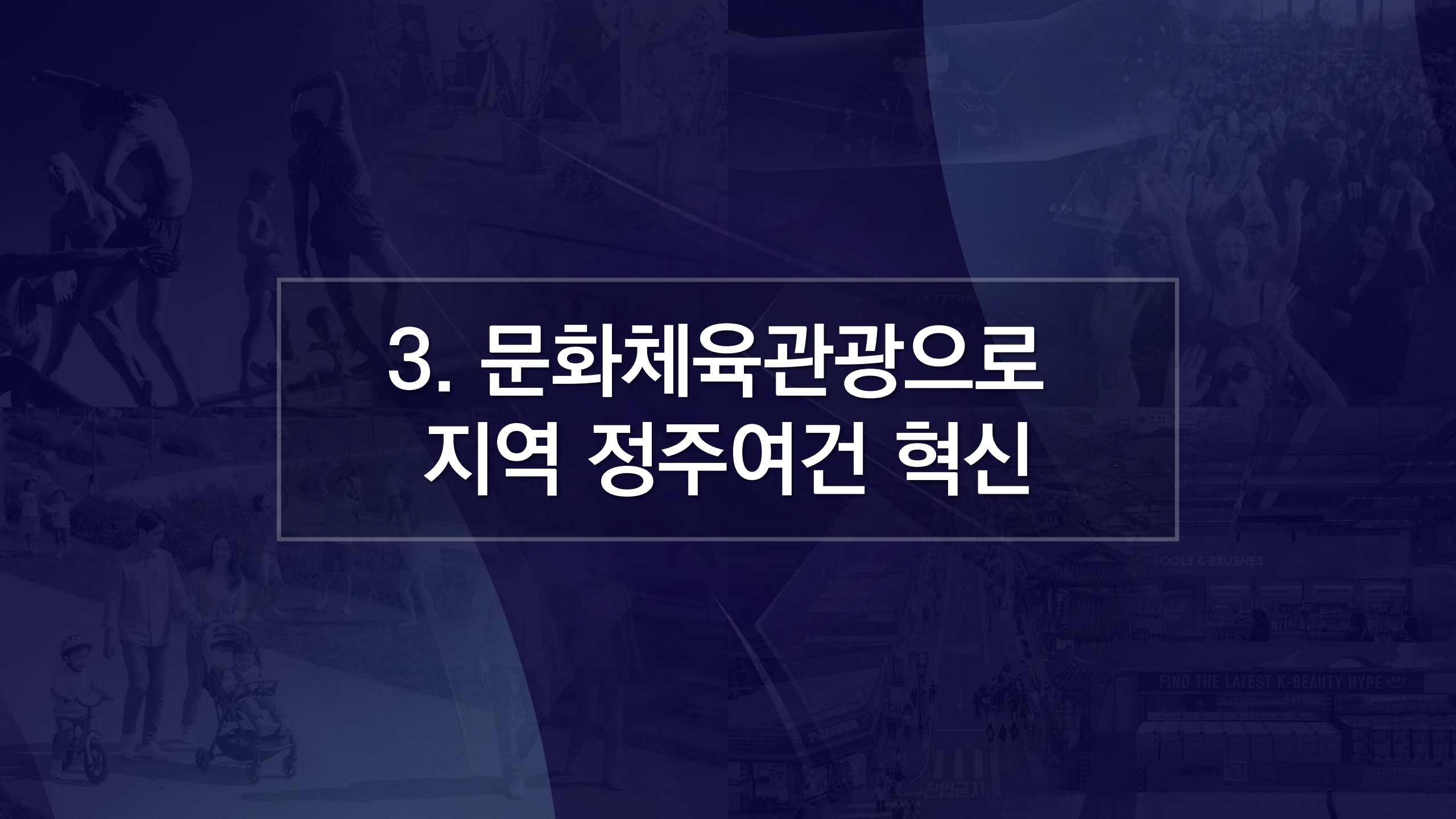
- 문학창작실, 진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등 스토리텔링 창작공간 확대
- K-북 100종·웹소설 특화수출, K-웹툰 번역 등 해외진출 확대
- 출판·웹툰·웹소설 원작의 IP거래·2차 저작화·마케팅 지원, 산업 확장

AI와 기술로 이끄는 K-컬처 혁신

- AI 활용 예술 창·제작, 특화인재 양성
- AI 콘텐츠 투자펀드 신설, AI 학습 저작권 표준계약서 마련
- 부산 기장 영화촬영소 등 첨단 제작 인프라 확충
- 국악·전통문양 등 한국 문화자산 데이터 구축

세계와 나누는 K-컬처 ‘노하우’

- 현지 K팝 인재 양성, 스튜디오·공연장 조성 등 문화 ODA 확대
- 콘텐츠 공동제작, 상호교류의 해, 박물관·스포츠 교류 등 정상외교 연계 파트너십



3.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여건 혁신

3.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여건 혁신

문화·체육 인프라 획기적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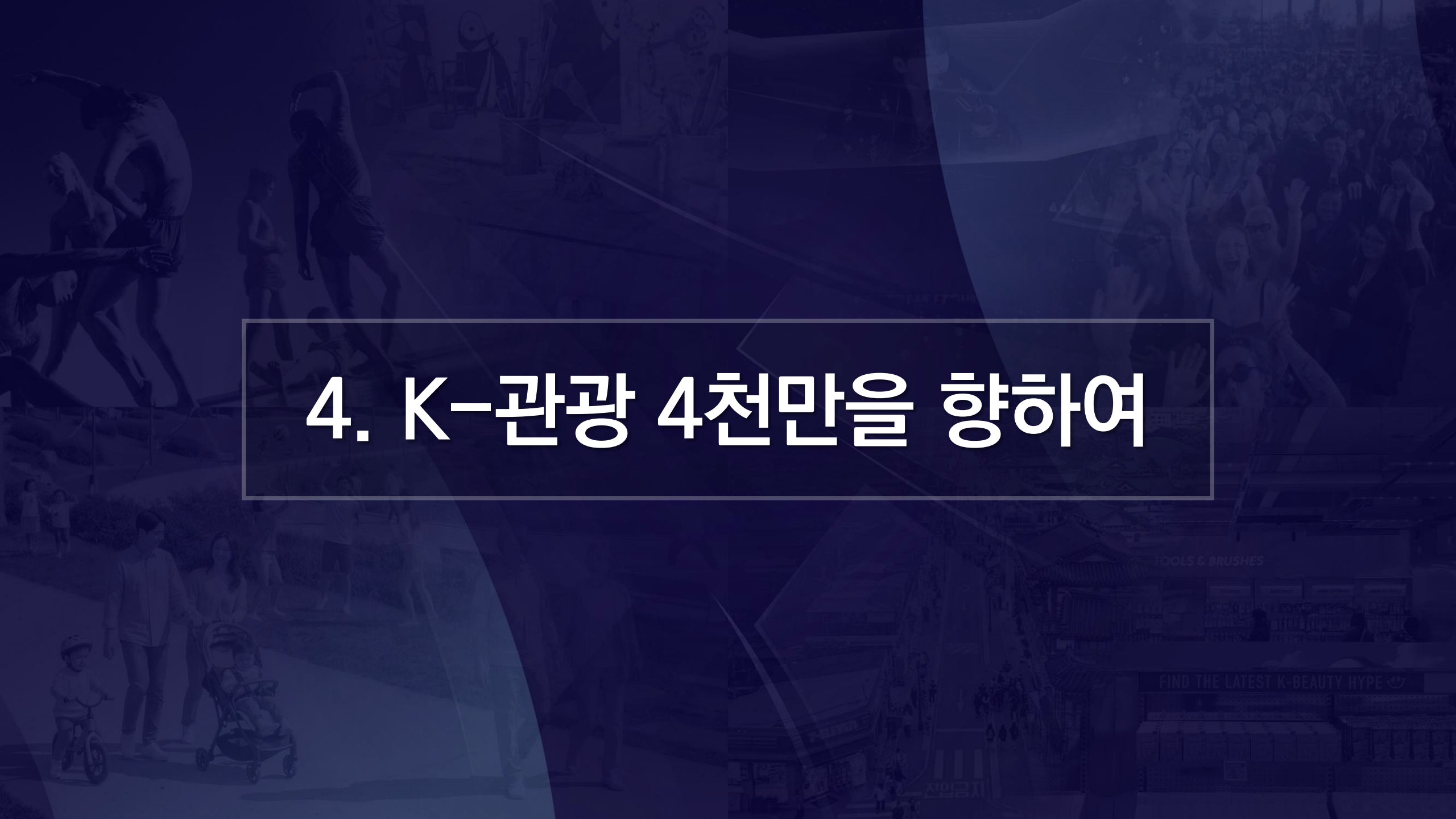
- 5극 3특 거점별, 문화시설 종합계획 수립
 - 4대 문화시설(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)의 지역별 전략적 배치
- 노후화된 문화·체육시설 개보수 추진
- 돔구장, 아레나, 스포츠 복합시설 등 선진국형 문화·체육시설 건립

지역 특화 전문인력 육성

- 문화기획자, 예술강사, 체육지도자, 청년문화PD 등 1만 명 육성
- 도서관, 작은영화관, 지역서점 등을 거점으로 생활문화 활동가 지원
 - * 동아리 운영, 영화관람 기획전, 북 콘서트, 독서 토론회 등
- 지역 특화 공연단체 활성화
 - *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, 문예회관별 특화 공연 지원, 서울예술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등

온 동네 가득한 문화의 향기

- **‘우리동네 이게 오네·있네’ 프로그램 대폭 확충**
 - K-팝 공연 지방 개최(연 20회), 문화요일 거리공연(연 1천 팀), 지역예술인들의 공연·전시회(연 100회)
- **지역서점 중심의 인생서점(200곳), 심야책방(140곳) 등 독서 커뮤니티 활성화**
 - * 지역서점 인증제 및 공공·학교 도서관의 지역서점 협동조합 도서 우선구매
- **청년문화예술패스 전면 확대**
 -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 등 사회진입기 청년의 문화비 부담 경감, 비수도권 우대
- **문화선도 산업단지 확대(10개소), 근로자 가족 특화 프로그램 확충**
- **농어촌 문화예술 거점 신규조성 추진(14곳)**



4. K-관광 4천만을 향하여

4천만 수용태세 확보

- **지역관문 확대**

- 지방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이행, 터미널·활주로 증설, 국제선 확충, 지방항만 출입국 여건 개선

- **숙박 수급개선**

- 숙박 진흥체계 일원화, 기존 시설 품질개선, 신규 호텔 투자 유도, 한옥·도시민박 등 대체시설 다양화

- **교통편의 증진**

- 광역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버스('26년 2곳 → '27년 5곳), 관광패스(교통-관광지 연계) 확대

- **출입국/비자 편의**

- 방한 핵심시장인 중국·동남아 무비자·복수비자 지속 확대, K-ETA 면제국 확대 및 이용편의 증진

- **산업기반 조성** :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(제주 등), 관광벤처기업 육성 지원

4. K-관광 4천만을 향하여

외국인이 좋아하는 지역 콘텐츠 집중 개발

- 콘서트·드라마 촬영지 등 K-컬처 상품 확충
- 미식·지역축제·전통시장·해안가·섬 등 특화 콘텐츠
- 아트·웰니스·K팝 VIP 관람 등 하이엔드 관광 특화상품 개발, 의료·뷰티·MICE

권역 단위 마케팅

- 5대 지방공항(김해, 청주, 대구, 무안, 양양) 중심 방한관광 골든루트 설정, 집중 마케팅
*예시: (일본 오사카) 관문도시 오사카 + 연계도시 교토·나라 / (미국 오대호) 관문도시 시카고 + 연계도시 밀워키·디트로이트
- 지역관광 마케팅: K-관광 로드쇼, 현지 인플루언서, OTA·SNS 마케팅

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국민여행

- 국민여행 활력 3종 세트

-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('26년 30만 → '27년 40만 명), 노동자 휴가비 지원 반값휴가('26년 15만 → '27년 50만 명), 인구감소지역 여행혜택 관광주민증('26년 52개 → '27년 60개 지역)

- 내수를 살리는 국민여행 캠페인: 지역체류형 숙박쿠폰, 봄·가을 여행가는 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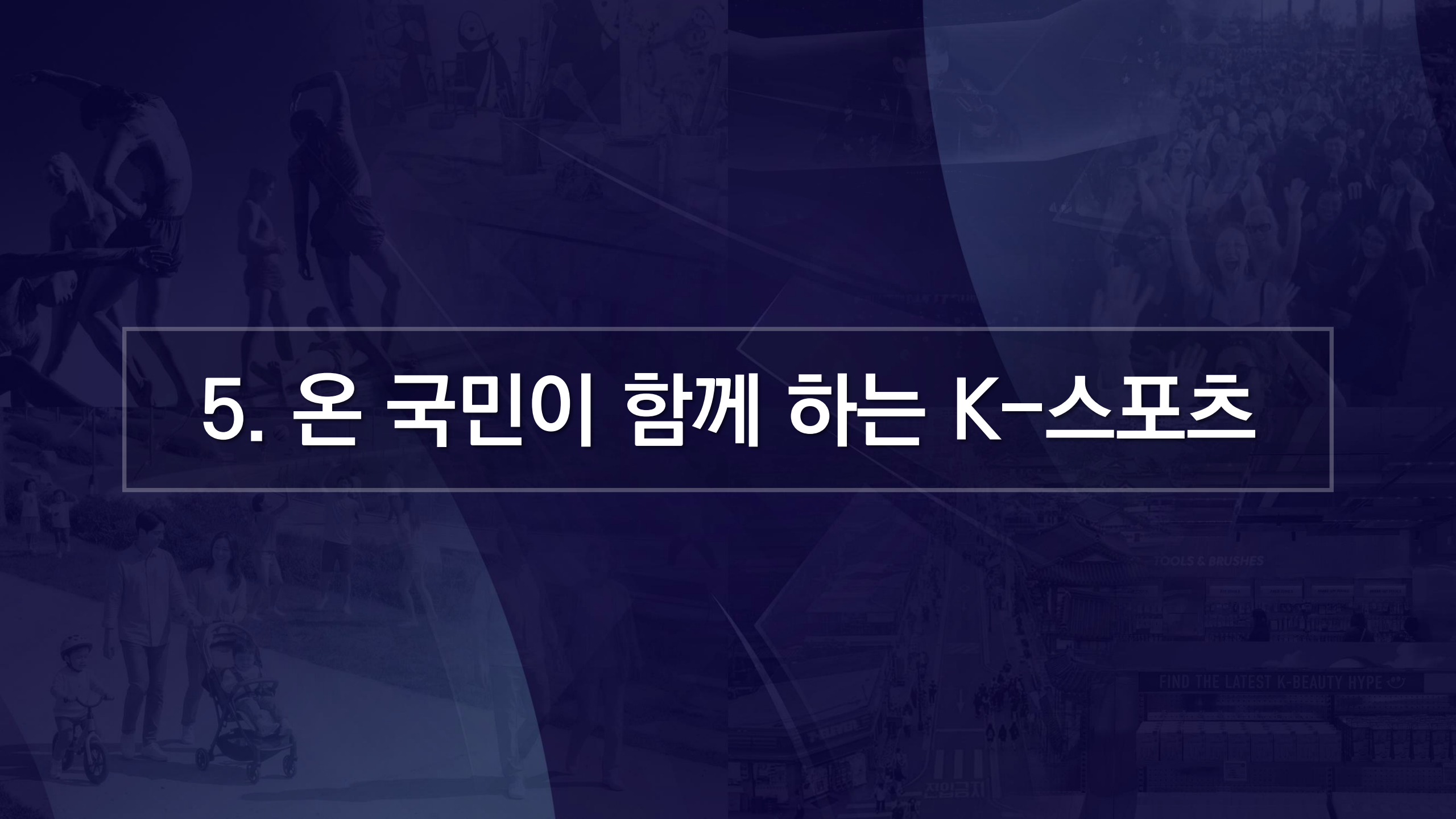
- '100×100 프로젝트' : 국민참여로 100개 주제, 10,000개 지역명소 발굴

바가지·불친절 등 관광환경 개선

- 지역주민 주도 '관광 새마을운동'

- 숙박 가격표시·준수 의무부과 및 위반시 즉시 영업정지 가능

- ※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(과징금, 명단 공표 등) 법령 개정 조속 추진



5. 온 국민이 함께 하는 K-스포츠

체육인이 이끄는 체육단체 개혁

-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확대(7월 총회의결) 및 종목단체로 확대(8월 예정)
- 대한체육회장 총 임기 제한 등 2차 개혁안 추진

한국 축구 신뢰 회복

- K-축구 혁신위원회의 성공적 임무 완수
 - 축구협회 차기 집행부 출범
 - 유소년 선수 육성, 지도자·심판 양성 시스템 등 중장기 발전계획 권고

국민 누구나, 1인 1스포츠 지원

- 유청소년·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대폭 확대
- 스포츠클럽 지원 강화('26년 163개 → '30년 250개)
- 승강제리그 활성화('26년 15종목 → '30년 20종목)
- 은퇴선수, 전문지도자 강습기회 제공

공공체육시설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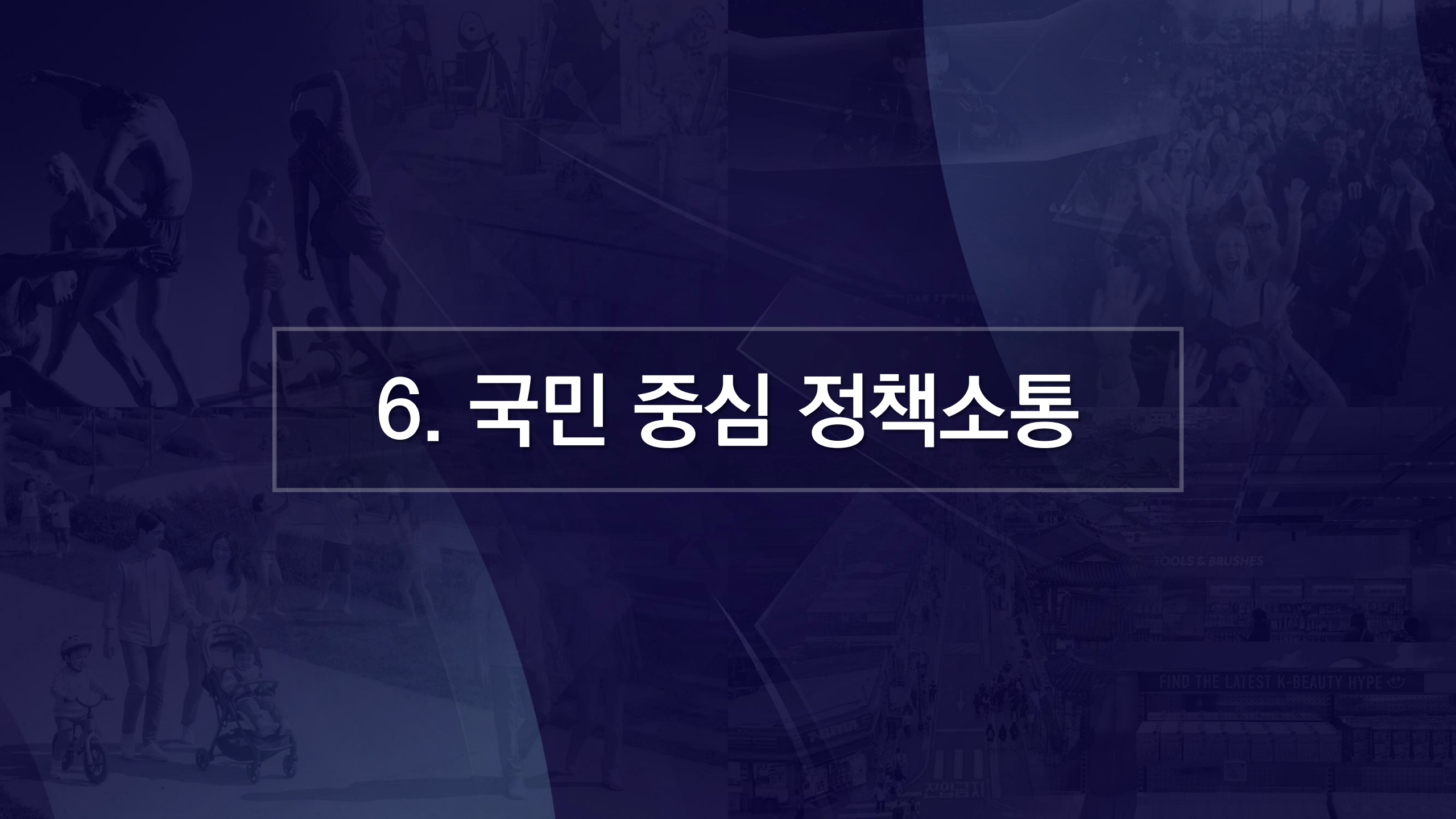
- '26년 국민체육센터 25개소, 반다비체육센터 5개소 건립('30년까지 150개 신축)
- 공공체육시설 개보수('26년 200개소 → '27~'30년 매년 400개소, '30년 누적 1,800개소)
- 전국 월드컵경기장 개보수('30년까지 10개소 전체)

튼튼머니, 일상 속 운동이 혜택으로

- 수혜자 수 ('26년) 25만 명 → ('27년) 140만 명

주요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

- 2026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/패러게임(일본, 9월)
- 2027 FIFA 여자월드컵(브라질, 6월)
-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(지방정부와 역량 결집, 8월)
-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(안전관리·출입국 등 공공영역 범정부 지원, 8월)



6. 국민 중심 정책소통

함께 참여하는 정책소통

- 국무회의 등 생중계 확대, 민간의 자발적 콘텐츠 확산
- 바이럴 캠페인 및 청년 크리에이터 협업,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 배송
- 수혜자 중심의 정책홍보 민생정책 체험담, 영상 공모전

국민의 자긍심 “K” 브랜드 정립

- “K”의 핵심 정체성·콘셉트 정립, 전문가 참여 및 국내외 연구조사
-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, 기업 공동 이벤트 등 “K” 브랜드 마케팅 강화



대체불가 문화강국,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



문화체육관광부